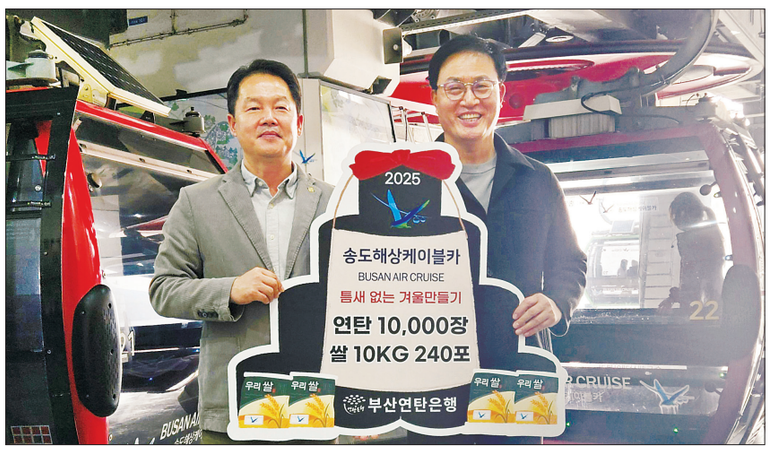
송도케이블카 "지역과 상생이 기업의 몫"

전문환 송도해상케이블카 대표
올 한해 소외 이웃에 2억여 원
'사회공헌', 경영 방침 맞닿아
이용객 기부금 적립해 나눔도
시공부터 자연 훼손 최소화 주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대월플러스 기업 계열사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사회환원을 통한 지역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은 전문환 송도케이블카 대표(왼쪽)가 부산연탄은행에 연탄 등을 전달하는 모습.

"관광시설을 통해 얻은 수익이 회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몫입니다"

2억 1280만원. 2025년 한 해 동안 송도해상케이블카(대표 전문환)가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해 나눈 금액이다. 2017년 개장 당시부터 8년간 이어온 나눔이 연말을 맞아 알려져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12월 16일 송도해상케이블카 사무실에서 만난 전문환 대표는 "관광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지역 사회에 다시 환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몫"이라며 "단순히 고객을 많이 유치해 매출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는 불자 기업으로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를 강조했던 최효섭 총괄 사장의 경영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밝혔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시설로, 관광 콘텐츠를 통해 부산 원도심 관광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매년 외국인 관광객 70만명 이상을 유치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쌀 나눔과 연탄 지원, 장학금 전달, 복지단체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정기적으로 이어가 기업운영의 모범적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해 케이블카 이용객 참여를 통해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도 운영 중이다.

전 대표는 "생필품이나 쌀을 전달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는 마음을 느끼고 돌아올 때가 많다"며 "받는 분들의 반응을 통해 기업 역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직원들 역시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 공감이 조직 내부의 화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송도해상케이블카 개장 이후 지역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대표는 "과거 송도 일대는 관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지만, 케이블카 개장 이후 숙박시설과 상권, 관광 편의시설이 정비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며 "동부산 중심의 관광 흐름이 서부산으로도 확장되면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규직과 계약직, 단기 근로자를 포함해 연간 1000명 이상이 근무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특히 회사는 환경보호를 위해 케이블카 시공 단계부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 했다. 전 대표는 "바다 시공 과정에서도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을 선택했고, 운영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케이블카는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로, 차량과 같은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시공 당시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의 소통도 잊지 않았다.

전문환 대표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안전사고 없이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관광을 통해 얻은 성과가 지역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이어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까지도 살피며 나눔을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대원플러스 기업 자회사인 송도해상케이블카는 2025년에는 사랑의 쌀독 운영 지원으로 총 3760포, 1억6986만원 상당의 쌀을 부산 지역 6개 구에 전달했으며, 애아원과 은애모자원 등 복지단체에 생필품 지원으로 998만4000원을 후원했다. 또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장학 지원으로 송도중학교에 1800만원을 지원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타원정대'와 자립키트 지원에 455만7970원을 후원했다. 이와 함께 부산연탄은행을 통해 연탄 1만장과 컵라면 2000개 등 총 10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부산불교문인협, 제28회 실상문학상 시상

12월 13일, 홍법사 대적광전서
대상 이석래 · 윤유점 시인 영예



사단법인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차정연)가 12월 13일 부산 홍법사에서 '제28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날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이어온 문인들의 창작 성과를 돌아보고 불교문학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상은 이석래·윤유점 시인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고순옥 시인, 작품상은 구본윤·박선옥·명은애·이경순·임정서·최선희·홍종원 시인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불교문인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조현호·최경화·최인숙·권철 시인은 공로상을 받았다.

윤유점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실상문학상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석래 시인은 "앞으로도 불교문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고 문학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혜총 스님, '제1회 종교평화상' 수상

종교 화합 · 평화 실천 공로



한국종교인연대 제1회 종교평화상 개인 부문에 혜총 스님(감로사 주지·전 조계종 포교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종교인연대(상임대표 김대선 교무)는 12월 18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제1회 종교평화상' 시상식을 열고 종교평화상 개인 부문 수상자인 혜총 스님에게 상패를 수여했다.〈사진〉 단체 부문은 크리스챤아카데미가 수상했다.

한국종교인연대는 지구촌 화합과 평화를 위해 애쓴 종교인들을 격려하고자 올해 처음 종교평화상을 제정했다.

혜총 스님은 종교 간 대화와 평화에 기여하고 불자 운동선수·북한 주민 지원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평화의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혜총 스님은 "앞으로도 이웃을 배려하고, 몸과 마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수행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송정인 수습기자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박종안 신임 단장 취임

12월 13일, 500여 명 참석
"미래 중심 전법으로 도약"


박종안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제14대 단장이 회기를 흔들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박종안)이 12월 13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전진대회 및 단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제14대 단장으로 선출된 박종안 포교사는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미래 세대 중심 전법으로 새 도약"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부산지역단 지도법사 해공 스님, 반야선원 선원장 안도 스님을 비롯해 김영석 포교사단 단장, 송재린 제13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 부산지역단 포교사와 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단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박종안 신임 단장은 취임사에서 소통과 협력의 조직 운영,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포교 방식,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전법, 포교사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단장은 "모든 포교사와 함께 걷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산지역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단장은 포교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강조하며 "포교사는 봉사 인력이 아니라 수행과 실천을 겸비한 전법자"라며 "부산지역단이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전법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포교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역단은 지난 한 해 동안 35개 팀, 580여 명의 포교사가 활동하며 도심 포교와 환경 보호, 자비 나눔 등 생활 속 전법을 실천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포교사와 장기 근속 포교사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김장나누기

저소득 이웃 600세대에 전달



사회복지법인 공덕향(대표이사 정창효)이 운영하는 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신자)이 12월 13일 지역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개관기념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덕향은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 2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복지관은 매년 600세대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140여 명이 참여해 배추 손질부터 양념 버무리기, 포장까지 전 과정에 힘을 보태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박신자 관장은 "매년 600세대에 김치를 나누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2월01일 출발~2월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인도 문화탐방 9일
인도의 주요 관광지만 가는 일정입니다.
2월11일 출발~2월19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인도 최고의 조각상)-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0만원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3월25일 출발~3월29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4월01일 출발~4월10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3월21일 출발~3월26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운남성 성지순례 7일
아름다운 운남성의 곤명-대리-
여강(옥룡설산)-샹그릴라 성지순례
4월06일 출발~4월12일 도착
▶ 동참금 : 23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